

‘괴물 폭우’, 보름 만에 광주·전남 ‘또’ 덮쳤다

무안 누적 257.5mm·시간당 142.1mm
홍수·산사태 특보 도로·바닷길 막혀
주중 내내 비...市·道 “피해 예방 총력”

괴물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광주·전남에 또 한 번 물폭탄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3·6면
보름여 만에 내린 최대 250mm 이상의 폭우로 1명이 숨졌고, 주택·도로 침수 등이 잇따랐다. 비는 이번 주 내내 내렸다.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30시간 만에 광주 8월 강수량 ‘홀짝’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무안이 257.5mm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광주 197.5mm, 담양 196mm, 구례·곡성 188.5mm, 함평 187mm, 신안 175mm, 장성 147mm, 화순 119mm, 나주 113.5mm, 순천 111mm, 영광 97.6mm, 광양 92.5mm 등으로 다수의 지역에 100mm 인팍의 비가 내렸다.

광주의 경우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이 326.4mm인 점을 고려하면 30시간 만에 보름치 이상의 비가 내린 셈이다.

시간당 강수량은 142.1mm의 신기록을 쓴 무안이 제일 많았다. 나머지 지역도 광주 89.5mm, 담양 89mm, 흑산도 87.9mm, 함평 87.5mm, 압해도 83mm, 곡성 72.5mm, 장성 65.5mm, 구례 56.5mm, 영광 50.9mm, 나주 43.5mm, 순천 40mm 등 세찬 비가 내렸다.

◇홍수·산사태 특보 잇따라...교통 통제도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홍수와 산사태 등 관련 재난 특보 발령도 잇따랐다.



쓰레기 가득한 함평 전통시장

30시간 만에 187mm의 괴물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은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4일 시장상인들이 물이 빠지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전남 오후 9시30분 광주 평림교와 함평 학야교를 시작으로 풍영정전 2교, 유촌교, 용산교, 극락교, 함평 원고막교, 담양 상지·양지교에 홍수 특보를 발령했다.

해당 특보들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모두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산사태 주의보는 전남 오후 6시32분 신안을 시작으로 무안, 나주, 함평, 장성, 광주, 화순, 구례

광양까지 확대됐다. 곡성과 영광, 담양의 경우 경보까지 내려졌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이날 오전 중 모두 해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용봉IC-서광

주IC(천안 방향) 구간을 전남 오후 10시20분을 기해 통제했다가 오후 11시17분부터 문흥IC까지로 연장했다.

서광주IC 진출 램프가 침수되면서 이뤄진 통제 조치는 이날 오전 3시10분에서야 풀렸다.

전남도도 여객선 10항로·12척과 국립공원 5개소, 도로 3개소, 집값다리 7개소 등 57개소에 대해 내린 통제 조치를 기상 상황에 맞춰 해제하고 있다.

◇市·道 소방 581건 조치...오라기락 비 계속
물폭탄이 쏟아지는 동안 지역에선 침수 등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는 전남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각각 173건, 408건 등 총 581건을 조치했다.

조치 내역은 건물·주택 침수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도로 장애 145건, 인명 구조 35건, 배수 지원 14건, 토사·낙석 5건, 나무 쓰러짐 4건, 화재 1건, 기타 32건이었다.

무안에서는 60대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비는 이번 주말·휴일 전까지 내리고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이른 오전까지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10~60mm, 전남 동부는 80mm 이상이다. 이후에는 광주·전남에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6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북부 5~40mm, 전남 남부 5~20mm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7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다”며 “지역간 편차가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영 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소비쿠폰 색상 논란’ 광주시, 인권감수성 분야 점점

42개 과제 도출...‘羨시장’‘점점안국화견의’

〈속보〉광주시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구분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감수성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개선이 필요한 42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와 산하기관 정책을 점검한 결과, 5개

분야 42개 정책이 인권감수성에 못미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 분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필요한 자격 제한,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 공공 접근권 침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5개 유형에 걸쳐 총 42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

한 사례가 지적됐다. 대학교를 학교 인구조육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다.

수도요금 납입 시 단수 처분을 내리면서 세대 출입문이나 우편함에 통보서를 부착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행정으로 판단됐다.

또 시립도서관의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 도서관으로만 제한한 사례도 공공기관 접근권

침해로 분류됐다.

용어를 통해 낙인 효과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네이밍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됐다.

육외노동자, 노후주택 거주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대응 정책도 차별 없는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권고됐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소비쿠폰 색상 논란에 대해 사과 말씀을 전하고 인권감수성 정책 점검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이와 함께 광주시 점

검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달라고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이 대통령께서 ‘별써 그렇게 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Today

- ‘글로벌이주허브’ 광주전남대전환이루자 5면
- 건설업계, 중대재해근절 힘 모은다 12면
- 돌아온 ‘키맨’...“승리의 매듭을 풀어야” 16면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전라남도

병원 문턱
건강보험이 없어도 넘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안심하는 병원, 전남이 시작합니다.

- ✓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도 통역 걱정 없이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jifsc.com) 또는 우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www.jifsc.com